인쇄하기

인쇄

항일의병 800여명 추가 발굴

o 정성학 기자 | : 승인 2018.02.22 20:26

> 광복회, 한말 전북의병사 연구결과

도내 항일의병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회 전북지부는 22일 전북도와 함께 '한말 전북의병사'를 연구조사 한 결과 항일의병 800여 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여러 의병자료와 일본 재판자료 등을 통해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독립 유공자 추가 서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까진 421명이 추서된 상황이다.

이강안 전북지부장은 이날 도청에서 조사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김송일 도 행정부지사와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저작권자 © 새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성학 기자 기자

인쇄